

[목회실에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김한성 목사

성경일독표를 따라 역대하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거룩한 꿈을 주시고, 솔로몬의 진두지휘 아래 아름다운 성전이 봉헌됩니다. 이렇게 두 인물만을 확대 조명하면, 더 중요한 큰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사실 성전건축이 가능했던 진짜 이유는 성전건축을 자신들의 꿈으로 받아 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다윗의 감사기도 (대상 29:10-19)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나그네 같은 인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다윗은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모든 감사는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나눕니다.

웨슬리 홀 재건축 안이 카운티 청문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먼저 이 시간, 이 자리 까지 와싱턴인교회를 선히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수고해 주신 건축위원회 (위원장 나준구 장로)와 모든 교우들에게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전해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며, 우리 교회가 무엇이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을 맡겨 주셨습니까? "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마음 가운데 품은 이러한 생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지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대상 29:18)

성전을 봉헌하며 성전 앞에 두 개의 놋쇠기둥을 세우고 (대하 3:15-17), 오른쪽은 야긴 (하나님이 세우셨다!) 왼쪽은 보아스 (하나님의 힘으로!) 라고 불렀습니다. 이번 재건축은 시작 부터 끝까지 '야긴'과 '보아스' 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고 다윗의 감사기도문을 웨슬리 홀 재건축을 위한 와싱턴인교회의 공동기도문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 모든 예배 시간에 재건축을 위한 전교우 설명회를 갖고, 예배 후에는 순원천교실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6월에는 재건축을 위한 교회총회를 열어, 사랑하는 교우들의 소중한 의견을 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김승석 선교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몇달 전 나다니엘 센터를 처음으로 방문 했을 때 느꼈던 벅찬 감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꿈과 소망을 각박한 현실에 저당 잡혀버린 까갈첸 마을, 나다니엘 센터는 빛과 생명을 밝히는 등대 같은 존재 입니다. 수백명의 학생들이 사랑하는 교우들의 기도와 후원 속에 새 생명과 새 비전을 찾게 됐습니다. 소슬한 바람이 내리는 초저녁에 나다니엘 센터 옥외 광장에서 멋진 공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노래와 춤 속에 담긴 맑은 영혼의 하늘잔치였습니다. 무대 양쪽에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김승석 선교사님 내외가 최대한으로 현지화하기 위해 까갈첸 마을 입구에 있는 두 기둥 모습으로 디자인 한 것입니다. 저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도우심과 선한 인도하심을 체험했습니다. 나다니엘 센터의 두 기둥 역시 다름아닌 야긴과 보아스 입니다. 웨슬리 홀 재건축을 앞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기도 속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두 기둥이 먼저 세워지길 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의 삶속에도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튼실하게 세워지길 축복해 드립니다.